

파워드레싱(Power Dressing)에 대한 사회문화적 연구

정 미 혜

부천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A Study on Power Dressing in Socio-culture

Mee-Hye Chung

Prof., Dept. of Fashion Design, Bucheon University
(2012. 9. 27. 접수; 2012. 11. 5. 수정; 2012. 11. 8. 채택)

Abstract

Fashion appears as a similar sense of form in a regularly cyclical way. The part highlighted in the female body also becomes that way. The social and cultural problem of fashion is also a matter about the selection of a wearer on how to wear in what environment.

Power dressing means an attire that makes you feel dignity, intelligence or power and an attire that is needed to succeed in the business society. It is based on the fact that women started wearing tailored suits that were regarded as the exclusive item of men as the women's social activity was actively progressi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of styles in the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The power dressing was repeatedly appeared in 1930s, 1980s and 2000s. Therefore, this study collected photo data and literature documents to analyze and compare shoulders represented during these three periods, and to examine what social cultural environment was operated for each period and how the designers of each period expressed with clothes.

Power dressing is characterized by the use of shoulder pad for the first time for 1930s, the extended shoulder for 1980s and the design the extended shoulder with the more decorative method for 2000s. Power dressing has been utilized as women's gain and improvement of social status, flaunting of economical status and a symbol of individuality and identity.

Key Words: Power dressing (파워 드레싱), Power shoulder(파워 숄더), Socio-culture(사회문화)

I. 서론

패션의 사회문화적 연구는 착용자가 어떠한 형태의 의복을 착용하고 선택하는가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한 여성의 어느 신체부위를 강조하는 가는 패션주기에 따라 비슷한 형태감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면 이러한 변화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00년대 이후는 패션의 다양성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시대로 매 10년 단위로 새롭고도 다양한 패션을 선보였고, 이러한 패션의 변화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디자이너의 창의성에 의해 대중에 선보이게 되었다.

파워 드레싱은 190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

Corresponding author ; Mee-Hye Chung
Tel. +82-10-2216-4558, Fax. +82-32-610-3397
E-mail : cmh@bc.ac.kr

※ 이 논문은 2011년도 부천대학교 교비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된 연구의 결과임.

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남성들의 전유물로 입었던 테일러드 수트를 여성들이 입게 된 것이 시초를 두게 된다. 1930년대에 테일러드 재킷에 솔더 패드를 이용하여 어깨넓이를 최초로 넓힌 이후, 1980년대, 2000년대에는 사회문화적 환경 내에서 파워 수트라는 복고적인 패션으로 유행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장식적인 기법을 이용한 파워드레싱이 다양하게 디자인되어 패션리더뿐 아니라 대중들도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Roach & Eicher(1979)는 한 문화체계에서 의복이 상징적 의사전달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의복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역할, 경제적 지위, 정치적 견해, 사회적 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이렇게 물질문화로서 의복은 문화체계 안에서 다양한 문화패턴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김현식(2000)은 복식과 문화라는 연구에는 질적 방법의 유용성을 언급하였고, 최선태, 진기남의 연구(2006, 2007)에서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적 행위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가공물로서의 패션은 그 사회상이나 시대상을 반영하고 개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혜원, 이미숙 (2002)은 문화산업적 시각에서 패션을 연구해야 된다고 하였다.

안광숙(1997)은 복고적 성향이 나타나는 이유를 사회진반에 걸쳐 그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과거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찾으려는데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에 박성운(2006)은 복고적 성향이란 단순하게 과거를 모방하기 보다는 과거의 요소를 이용하여 더욱 새롭게 재구성하는 복식의 표현기법임이라고 하고, 동시에 과거의 요소가 동일하게 리바이벌된다고 할지라도 각 시대의 패션은 그 시대의 사회현상의 반영이라고 하였다. 대표적 복고적 성향으로 파워 솔더룩을 제시하였다.

또한 파워 수트와 연관된 연구들은 우먼 파워로 나타나는 패션스타일(최호정, 하지수, 2005), 파워 솔더룩의 패턴연구(김영란, 2007, 2010), 파워 솔더 재킷의 조형적 특성(김정미, 이정순, 2009, 김정미, 2011)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1900년대 이후의 솔더룩을 강조한 세 시대, 1930년대, 1980년대, 2000년대의 사회구성원이 파워 드레싱으로 자기표현을 하는데 사회문화적 환경은 어떠한 작용을 하였으며, 어떠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지 고찰해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 자료 검색을 통한 사진자료 및 컬렉션에서 1900년대 이후의 세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비교하고, 이를 그 시대의 디자이너는 의복으로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이미지를 분석하여 특성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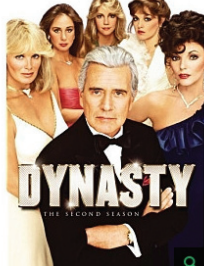
II. 파워 드레싱의 개념과 사회문화적 환경

1. 파워드레싱의 개념

파워 드레싱이란 위엄이나 지성, 힘을 느끼게 하는 옷차림. 비즈니스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 필요한 옷차림을 말한 것으로, 특히 미국에서의 비즈니스맨이나 커리어 우먼의 의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다. 그와 같은 의복을 파워 수트, 파워 룩이라고 부른다.(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1997) 최호정, 하지수(2005)는 파워 수트란 권력과 부의 이미지가 융합된 ‘파워 드레싱(Power Dressing)’ 중 성공을 위한 여성의 옷차림을 의미한다. 특히 남성의 영역이라 생각되었던 직장에서 전문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가시화하기 위한 남성적인 비즈니스 슈트 스타일이 파워 슈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파워 슈트는 1980년대에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출현했던 여피(yuppie)들을 중심으로 수용되었다. 파워 슈트는 남성 중역들의 옷차림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본래는 여성성을 강조하지 않는 직선적이고 험렁한 실루엣이었다. 넓은 라펠의 더블 브레스트 재킷, 무릎길이의 스트레이트 스커트, 네이비, 베이지 등의 차분한 컬러, 역삼각형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패드가 들어간 넓은 어깨는 필수적이었다(이진민, 2012).



<그림 1> Marlene Dietrich
(출처 : www.samsungdesign.net)



<그림 2> Dynasty
(출처 : <http://naver.com>)

2. 사회문화적 환경

1) 1930년대

1893년 프랜시스 하퍼(Frances E. harper)는 “오늘날 우리는 여성의 시대로 접어드는 길목에 서 있다”고 선언한 것처럼, 1890년과 1920년 사이에 여성은 공적인 영역에 등장하면서 새로운 성역할을 추구하게 되었다(함연자, 2003재인용). 이 시기의 여성들은 여권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제 1차 세계대전으로 남성들이 전쟁에 참여하여 공백이 생긴 노동력을 담당하였다. 남성들이 입던 노동복을 착용하였고, 우편배달부로부터 공장에서의 작업까지도 참여하였다. 특히 1920년대의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더욱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는 여성복이 심플해졌고, 남성들의 전유물로 알고 있던 테일러드 수트를 여성의 근무복 또는 스포츠웨어로 입게 되었다. 1930년대는 대공황으로 시작하여 전쟁으로 끝난 시대이다. 1929년 10월 뉴욕증권 시세의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은 세계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1930년대의 사회불안과 정치적 혼란을 가져왔다. 경제 불황은 패션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심각해지는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기성복 라인을 새롭게 개설하였으며, 보다 실용적인 의상을 만들기 위해 경제적인 소재들을 사용하였다. 빈곤한 실제생활과는 대조적으로 영화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으며, 사람들은 환상의 세계를 보여 주는 영화를 통해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당시 영화계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배우로는 남성복을 즐겨 입었던 마를렌스 디

트리히(그림 1)등이 있었으며, 영화산업의 발전은 기성복과 화장품 산업의 발달을 가져왔다(금기숙 외, 2002).

2) 1980년대

1960년대 이후 여성해방운동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적 역할이 증가되었다. 1960, 70년대는 청소년들이 문화 창조의 주체로 패션의 리더였다면, 1980년대는 직장여성들이 새로운 소비자 집단으로 부상되었던 시기이다. 1980년대를 전후로 베이비 붐 세대에 의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경향이 나타났는데, 미국의 대도시 교외에 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엘리트층인 여피(yuppie, young urban professional과 hippie의 합성어)는 산업계와 정계에서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여피’는 ‘Young Urban Professionals’의 준말로, 뉴욕을 중심으로 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거주하면서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들의 패션 키워드는 ‘럭셔리(luxury)’와 ‘클래식(classic)’이었는데, 남성 여피들의 경우 클래식하면서 조금 과장된 듯한 실루엣의 30년대 풍 비즈니스 수트로,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자 동료들처럼 성공의 지름길을 가고자 하는 희망을 내포하는 파워 슈트를 착용함으로써 능동적이며 권위적인 이미지를 가시화하였다. 이들은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직업적 성공과 경제적인 부에 가치를 두며, 여가를 즐기는 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부류였다(김민자, 2012).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방영된 ABC-TV의 드라마 ‘다이너스티(Dynasty)’(그림 2)는 최상류층의 명문재벌가의 가족사를 다룬 드라마이다. 80년대 전체기간동안 호화로운 대저택과 인테리어, 화려한 의상과 고급 브랜드의 보석 등 최상류층의 생활을 보여주며, 대중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어 지탄을 받기도 했으나, 강렬한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들만의 생활을 보여주어, 극중에 등장하는 패션이 대중에게 전파되어 착용되어지기도 했다. 이드라마를 반영하듯이 1980년대 남성과 여성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자 파워 슈트(power suit)를 입는 경향이 있었다.

3) 2000년대

2000년대 들어 프르미에르 비죤(Premiere Vision)에서는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패션트렌드를 예측했다. 이 시대의 사회적 트렌드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하이테크의 발전, 다문화주의의 팽배, 초자유주의의 추구하고 여성의 파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를 개인이 적극 수용하는가 혹은 거부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형성되고, 패션트렌드는 이러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적극 반영한다고 하였다(김민자, 2012). 또한 대중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20세기 이후의 대중문화는 자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자본과 결합한 문화는 다양한 소비자의 욕망과 가치, 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술성, 희소성, 공익적 가치와 결합된 상품을 문화상품으로 미화시켜 소비를 촉진시킨다. 이제 대중은 소비자가 되고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과정이 상품과 연계되어 일상을 예술적 경험으로 승화시킨다. 즉 현대의 상품은 욕망 추구를 위한 단순 대상이 아니라 특정 자아나 집단을 반영하는 대리물이거나 그 자체로 격상되었다(양희영, 2012).

2000년대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하면서 특정자이나 집단으로의 자기표현을 자신의 외모와 스타일로 표현하면서 여성의 파워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파워 드레싱은 Balmin 외에 많은 디자이너들도 컬렉션에서 발표하여 유행이 되었고,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소개되며 대중들의 스트리트 패션에 까지 확산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2009년 방영되었던 드라마 ‘스타일’과 ‘아가씨를 부탁해’는 파워 드레싱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 패션매거진 ‘STYLE’을 이끌어가는 ‘박기자’역의 김혜수는 명품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예술적인 아이템들과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패션에 대한 열망과 야망이 있는 편집장답게 럭셔리하고 과감한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 그녀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은 패션에서도 가감 없이 드러나는데, 마치 런웨이에서 방금 나온 모델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치의 부족함도 없이 자신만의 뚜렷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edged chic’ 스타일을 선보였다. 드라마의 첫 등장 때 입은 Balmain의 블랙레이스 블라우스와 하이웨이스트 집업 스커트에서 알 수 있듯이, 소매와 어깨를 강조한 룩을 통해 패션매거진 편집장다운 아우라와 여성전문인의 파워를 느낄 수 있다(삼성디자인넷, 2009).



〈그림 3〉 스타일
(출처: <http://samsungdesign.net>)

‘아가씨를 부탁해’에서 재벌가 상속녀이자 핫셀리브리틴인 ‘강해나’역을 맡은 윤은혜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집사를 부리는 등 자기중심적이고 안하무인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역시 Balmain과 같은 어깨를 강조한 의상을 착용하는 등 럭셔리하고 트렌디한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자유분방한 ‘Luxury Chic’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다. ‘박기자’의 스타일과 차이점이 있다면 명품을 포함해 제한 없이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의상들로 현대적인 귀족의 이미지를 잘 살리고 있다. 그녀들의 스타일링에 공통점이 있다면, Balmain의 시그니처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 어깨가 강조된 재킷을 통해 그녀들의 사회적 지위나 자존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삼성디자인넷, 2009).



〈그림 4〉 아가씨를 부탁해
(출처: <http://samsungdesign.net>)



<그림 5>1932년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6>1938년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7>1930년대 후반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8> 1934년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9> 1934년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10>1938년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11> 1938년
(출처:www.samsungdesign.net)

III. 파워드레싱의 디자인적 특성

1. 1930년대

1) 스타일의 특성

1930년대 들어 수트, 코트, 평상복은 더 말쑥하고 더 정확한 선으로 재단되어 여성복의 어깨 넓이가 20세기 들어 처음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그림 5, 6, 7). 소매와 보디스는 더 구체화되었고 더 몸에 맞았다. 특히 그림의 재킷의 솔더 부분을 비교하면 점점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0년대 말에 나타난 새로운 의상은 40년대에 유행할 약간의 밀리터리풍이 가미된 룩이었다. 여성들은 테일러드 수트를 거의 유니폼처럼 입었다. 검은색의 테일러드 수트와 흰색 실크 블라우스, 진주 장식의 흰 장갑, 시크 햇(chic hat)의 옷차림은 그 당시 전문직 여성의 전형적인 차림새였다. 1930년대 초의 어깨가 넓고 각이 진 박스형 재킷을 제외하면 대체로 허리가 꼭 끼는 싱글 혹은 더블 브레스트였으며 허리에

벨트를 매기도 하였다. 겨울에는 트위드의 울 슈트와 여름에는 리넨의 앙상블(ensembles)이 유행하였다(김민자, 2011).

2) 대표적 디자이너별 스타일

(1)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lleli)

1933년 스키아파렐리는 어깨를 넓게 강조한 재킷과 스커트로 된 투피스를 발표하였다. 재킷의 어깨에 패드를 넣어 각이 지는 어깨선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전쟁 전·후에 계속 인기를 끌었다. 수트의 넓고 강한 어깨선의 역삼각형 실루엣을 강조하기 위해 가는 허리와 작은 힙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또한 이에 맞는 투웨이 스트레치 원단의 올인원스타일의 화운데이션을 착용하도록 하여 더욱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고자 하였다. 1934년의 수트(그림 8)은 스키아파렐리가 넓게 확장된 새로운 어깨선을 보여주었고, 패션의 초현실주의자였던 스키아파렐리는 수트에 나비등의 모티브로 단추를 대신하는 파격을 보여 주었다. 또한 래글런슬리브의 패디



<그림 12> 1984년 F/W Yves Saint Laurent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13> 1984년 F/W Thierry Mugler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14> 1984년 F/W Torrente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15> 1987년 F/W
(출처: www.samsungdesign.net)

드 솔더를 같이 하여 새로운 수트를 보여 주었다.(그림 9) 강조된 어깨와 비즈와 금사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한 이브닝 재킷(그림 10)과 짙은 남색의 모직으로 된 수트(그림 11)는 보디스는 맞고 어깨는 넓은 역삼각형 실루엣을 보여주는 1930년대 스키야파렐리의 대표적인 재킷 스타일이다

2. 1980년대

1) 스타일의 특성

1980년대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적 진출로 인해 직업여성의 수가 증가되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여성의 슈트에는 남성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어깨를 강조한 새로운 슈트 스타일인 빅 룩(big look)이 유행되었다. 빅 룩은 어깨심을 넣은 넓은 어깨와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재킷, 무릎 위 10cm 올라간 짧은 스커트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파워 슈트(power suit)라 일컫었다. 이러한 스타일은 여성의 ‘성공을 위한 옷차림(dress for success)’이라 불렸으며, 남성의 슈트와 비슷하게 어두운 색의 테일러드 재킷과 스커트로 이루어진 정장과 남성의 와이셔츠와 유사한 블라우스를 입을 것을 제시하였다.

파워 슈트는 1980년대의 전 시기에 걸쳐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스커트 대신 팬츠를 재킷과 함께 입기도 하였다. 팬츠 슈트는 캐주얼웨어나 이브닝 웨어로도 입을 수 있었으며, 폴리에스터 니트와 울 개버딘으로 만들어졌고, 다양한 가격대에서 구매할 수 있었

다. 특히 남성복의 재단법을 여성복에 적용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팬츠 슈트가 큰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아르마니는 디바이디드 스커트(divided skirt)와 재킷을 제한하였고, 이 쇼츠 슈트(shorts suit)는 짧은 스커트 대신 입기도 하였다(김민자, 2012).

이브 생 로랑의 수트(그림 12)는 구조화된 역삼각형 실루엣을 보여주며 솔더 부분이 강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둥근 형태로 솔더가 강조된(그림 13) 스포티한 느낌의 재킷은 80년대의 솔더가 직선형 과장과 곡선적 과장형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미드리프(그림 14)와 빅 벨트(그림 15)는 강한 어깨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아이템이었다.

2) 대표적 디자이너별 스타일

(1)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1975년 여성복을 런칭한 이후, 절제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로 전문직 여성을 위한 스타일을 디자인하였다. 그는 새로운 소재와 중간 색조의 조합을 통해 남성복을 재규정한 이듬해, 이를 여성 패션에 적용함으로써 여성복의 변화를 주도하였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남성 슈트이면서 남성 슈트처럼 보이지 않는 ‘파워 슈트(power suit)’가 있었다. 특히 아르마니의 여성복은 도시 지향적이며, 차분하고 중성적인 느낌이 강해 자신의 일을 갖고 성공을 향해 전진하는 많은 여피들에게 편안함과 더불어 절제된 권위를 표현하는 스타일로 인식되면서 절대적인 호응을 얻었다.



<그림 16> 1987 S/S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17> 1987 S/S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18> 1987 S/S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19> 1986-7 F/W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20> 1985 S/S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21> 1985 S/S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22> 1985-6 F/W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23> 1985-6 F/W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러나 아르마니는 남성 슈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몸에 꼭 맞는 전형적인 실루엣을 지향하지 않았으며, 부드러운 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뽀뽀한 심지와 안감, 다크 및 불필요한 형식을 해체하고 다시 재단하는 방식을 통해 그만의 새로운 파워 슈트를 디자인하였다. 그는 재킷의 진동들레 모양을 변형하고, 마무리 디테일들을 단순화하였으며, 부드럽고 차분한 색조를 만들기 위해 다른 색상의 실 7~8개를 섞어 사용하여 제작한 옷감을 사용하였다. 또한 그는 둥근 목선의 단순한 실크 블라우스 위에 넓은 어깨와 품이 넉넉한 굵은 체크의 개더 스커트를 매치하거나, 침착한 색상의 최고급 울과 실크를 사용한 세퍼레이츠(separates: 위아래가 나누어져 있는 옷)를 발표하여 중성적 매력이 가미된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아르마니는 스커트를 재단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젊어 보이는 스타일의 편안한 재킷과 바지를 더 자주 보여줌으로써, 재킷과 스커트의 조합만이 성공을 위한 옷차림이

라는 생각을 대체하였다(이진민, 2012).

1987년에 조르지오 아르마니 콜렉션에서 발표된 파워 숄더룩(그림 16, 17, 18, 19)은 1980년대 파워 숄더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숄더 패드의 부피를 충분히 크게 하여 어깨 폭이 최대로 과장된 숄더 형태였다.

(2)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

1983년 샤넬의 예술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디자인 세계를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샤넬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색을 담은 샤넬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성공한다. 트위드 샤넬재킷의 형태는 유지하며 파워 숄더를 결합하여 기존의 정돈된 클래식 스타일에서 약간 벗어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한 전위적인 클래식(그림 20, 21)이라 할 수 있다. 파워 숄더 룩의 혼합과 블랙과 화이트의 대비로 이루어진 엄격한 파리제넌스의 슈크함(그림 22), 여기에 프렌치 감각의 토털



<그림 24> 09 S/S Balma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5> 09 S/S Balma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6> 09 S/S Balma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7> 09 S/S Balma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8> 09 F/W Balma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9> 09 F/W Balma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0> 09 F/W Balma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1> 09 F/W Balma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코디네이션을 보인 파워 숄더 코트(그림 23) 까지 흠잡을 곳 없는 기술과 재치가 넘치는 디자인(인)은 그를 비롯한 브랜드의 명성을 드높이게 되었다.

3. 2000년대

1) 스타일의 특성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어깨에 심을 넣어 다양한 형태로 과장한 재킷이 유행하였다. 많은 디자이너들은 어깨를 위로 솟게 하거나 아래로 처지게 하든지 혹은 넓히거나 부풀린 재킷에 스커트나 팬츠 등을 매치한 슈트들을 발표하였다(김정미, 2011). 이에 따라 1980년대 여성파워의 증가와 더불어 유행하였던 파워 슈트가 다시 등장했다. 파워 슈트는 기본적으로 남성적인 느낌의 슈트이나, 최근의 트렌드에 맞추어 부드러운 친을 이용한 카울(cowl)로 어깨를 감싸거나, 심을 넣은 어깨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함으로써 1980년대보다 여성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2) 대표적 디자이너별 스타일

파리, 뉴욕과 밀라노의 디자이너들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파워드레싱을 컬렉션에 선보였으며, 전 세계적인 유행을 이끌어 내었다. 특히 파워 숄더 룩을 가장 많이 보여 준 파리 컬렉션의 4명의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해보았다.

(1) 발망(Balmain)

Christophe Decarnin이 이끄는 Balmain브랜드는 09 S/S, 09 F/W, 10 S/S, 10 F/W 컬렉션에서 숄더 부분을 강조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스톤워싱 진의 바이커 재킷에 크리스털 장식을 가득한 자켓(그림 24), 화이트 실크 새틴 텍시도 재킷(그림 25)은 아주 좁은 소매를 하여 어깨 가까이 갈수록 마치 어깨선과 만나서 솟아오르듯이 뾰족한 형태의 새로운 파워 숄더를 보여 주었다.

시퀸 장식의 시스드레스(그림 26)와 하이웨이



<그림 32> 10 S/S Balma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3> 10 S/S Balma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4> 10 S/S Balma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5> 10 S/S Balma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6> 10 F/W Balma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7> 10 F/W Balma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8> 10 F/W Balma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9> 10 F/W Balma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스트 스커트에 매치된 블라우스(그림 27)는 재킷에 사용된 피크드 솔더보다는 솔더의 뾰족한 부분을 약간 굴려 여성스러운 느낌의 파워솔더를 표현하였다. 블라우스의 솔더 부분은 자수를 놓아 여성스러운 느낌을 더하였다. 재킷의 어깨를 수평으로 솔더 라인을 확장하되 소매와 만나는 라인을 아주 뾰족하게 하거나(그림 28) 솔더 라인과 소매가 만나는 라인을 사선방향으로 끌어 올려 뾰족하게 하여 피크드 솔더로 강조하였다(그림 29). 이러한 솔더라인을 확장하되 사선방향으로 끌어 올려 뾰족하게 피크드 솔더로 표현한 재킷(그림 30)도 보여 강렬한 개성을 드러냈다. 또한 원피스(그림 31)에 스트라이프 패턴과 피크드 솔더를 매치시켜 그 효과를 더욱 배가시켰다.

10 S/S 컬렉션에서는 다양한ミリ터리 재킷에 파워 솔더를 매치하여(그림 32) 남성적인 느낌의 재킷에 글래머러스한 느낌이 더하여졌다.ミリ터리 재킷의 확장된 솔더에 메탈 프린지(그림 33), 메탈 메시에 브라스 버튼 메달 등을 장식하

였고(그림 34), 올오버 싸이에프 소재에 체인 메일을 네크라인과 솔더에 자연스럽게 드레이프시켜ミリ터리풍의 재킷(그림 35)의 솔더를 강조하면서도 부드러움을 강조하였다.

10 F/W 컬렉션에서는 화려하고 성숙한 느낌으로 디자인하였는데, 장식적인 느낌으로 바로크적인 자수와 소재를 사용하여 역사적인 느낌이 강하였다. 이 느낌에 피크드 파워 솔더를 결합하여 모던함도 같이 하였다. 보디콘셔스라인의 원피스에 골드체인으로 드레스(그림 36)위에 형태감을 만들었고, 파워 솔더 라인과 소매의 중심선에도 금속체인을 통과시켜 굵고 강한 선의 형태로 강조되어 형태감이 더하여졌다. 골드컬러와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의 둥근 윗부분을 뾰족하게 변형시킨 드레스(그림 37)와 레오포드 프린트와 아주 뾰족한 파워솔더(그림 38)은 매우 고급스럽고도 글래머러스한 느낌의 파워 솔더를 보였다. 모피와 부피감이 느껴지는 확장된 솔더를 사용한 코트(그림 39)도 보여 진다.



<그림 40> 08 S/S Balenciaga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41> 08 S/S Balenciaga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42> 08 S/S Balenciaga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43> 08 S/S Balenciaga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44> 09 F/W Balenciaga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45> 09 F/W Balenciaga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46> 09 F/W Balenciaga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47> 09 F/W Balenciaga
(출처: www.firstviewkorea.com)

(2) 발렌시아가(Balenciaga)

Nicolas Ghesquiere의 Balenciaga 브랜드는 08 S/S, 09 F/W 시즌에 정교하고 구조적인 테일러링을 통해 완성된 파워숄더를 선보였다. 08 S/S 시즌은 전체적인 느낌이 플로럴 프린트가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아워글래스 실루엣으로 매우 여성적인 느낌이 강하였다.

수채화풍의 은은한 꽃무늬소재에 차이니스 컬러에 절개선에 스티치 장식을 하고 매우 구조적인 느낌이 강한 숄더를 더한 튜닉(그림 40), 마젠타 컬러와 화이트 컬러로 이루어진 체크 프린트와 매치된 어깨 끝점으로 갈수록 붕긋하게 솟아오른 형태의 둥근 어깨(그림 41), 선명한 컬러의 꽃무늬로 장식된 튜닉(그림 42)의 소매는 매우 구조적인 형태로 랜턴 슬리브의 뾰족한 부분이 어깨끝점으로 밀어 올려준 듯한 독특한 형태감을 보여주었다. 어깨 전체가 개더링으로 장식된 커다란 둥근 구 형태의 꽃이 활짝 핀 듯한 숄더를 한 튜닉(그림 43)도 보여진다. 09 F/W 시즌은 다양한 트렌드를 보여주었는데 그 중 파워숄더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기존의

구조적인 형태감보다 드레이프를 이용한 스커트와 아워글래스 실루엣으로 부드러운 유연함이 많이 선보였다. 이러한 스타일에 대비효과를 이루며 강조를 두는 것이 숄더라인이다. 하의의 부드러운 접힘선과 상체의 더블니트로 이루어진 상의(그림 44)에 부드럽게 강조된 숄더라인이 긴장감을 더한다. 플런징 네크라인에 레이스 브라 톱을 매치한 벨벳 드레스(그림 45), 블랙 레이스 브라 톱을 매치한 화이트 셔츠(그림 46)는 단순한 실루엣에 파워숄더로 실루엣이 지루하지 않게 개성이 부여되었다. 번 아웃 벨벳 드레스(그림 47)는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를 이용하여 숄더를 강조하기도 했다

(3) 지방시(Givenchy)

Ricardo Tisci의 Givenchy 브랜드는 09 S/S, 09 F/W 10 S/S 세 시즌에 걸쳐 파워 숄더룩을 제안했다. 골드 보우의 화이트 셔츠와 같이 착용된 블랙 재킷(그림 48)과 커다랗게 과장된 리본 밴드 화이트 셔츠와 매치된 가죽 블랙 재킷(그림



<그림 48> 09 S/S Givenchy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49> 09 S/S Givenchy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50> 09 S/S Givenchy
(출처: www.firstview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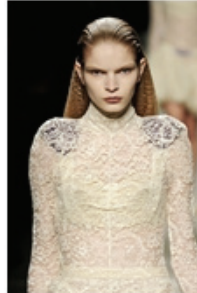
<그림 51> 09 S/S Givenchy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52> 09 F/W Givenchy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53> 09 F/W Givenchy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54> 09 F/W Givenchy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55> 09 F/W Givenchy
(출처: www.firstviewkorea.com)

49)은 발팽이나 발렌시아가의 뾰족하고 둥근 구조적인 파워 숄더와 비교하면 별로 특징적인 형태가 아닌 듯 보이나, 가장 대표적인 80년대풍 베이직 파워 숄더 라인을 보여주었다. 가죽 재킷의 숄더와 소매 중심선에 커다란 글래스 장식을 부착시켜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룩을 완성했다. 그에 비해 블랙 크리스털장식이 부착된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의 블랙 블라우스(그림 50)와 연한 머스터드 컬러 위에 베이지색 종이를 접어서 장식한 듯한 드레스(그림 51)는 매우 기교적이고 페미닌하고 글래머러스한 느낌이 강조된 파워 숄더 룩을 보여 주었다. 09 F/W 시즌은 매우 다양한 트렌드를 보여주었다. 그 중 파워 숄더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울과 레더의 소재 대비효과를 보여준 블랙 재킷(그림 52)은 전 시즌에 보여주었던 베이직한 파워 숄더룩을 보여 주었다. 아주 뾰족한 파고다 슬리브가 포인트가 되는 블랙 레더 재킷(그림 53), 숄더 패드가 비쳐 보이는 레이스 드레스(그림

54)의 둥근 형태의 숄더, 뚜렷한 구조선의 비대칭적인 형태감의 드레스(그림 55)는 어깨 끝에서 파워 숄더를 약간 굴려 주어서 옷에서 느껴지는 딱딱함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구조적인 화이트 캐스케이드 러플로 커다란 볼륨의 장식을 만들어 숄더 라인이 과장되게 두드러진 드레스(그림 56), 캐스케이드 러플과 둥근 구형태의 깃털로 장식한 원 숄더 드레이프드 랩 드레스(그림 57) 등과 같이 구조적인 장식물로 파워 숄더의 형태를 보인 의상도 선보였다. 모피로 숄더 부분을 강조한 재킷(그림 58)과 코트(그림 59)는 모피를 옷에 더하여 약간은 지나친 형태감으로 경직될 수 있는 옷의 분위기에 부드러움을 더하여 주었다.

10 S/S는 그래픽적 터치가 많이 등장한 시즌이었다. (그림 60)은 블랙과 화이트 스트라이프 패턴의 재킷 직선과 사선이 합하여지면서 조형적인 형태감이 두드러져 강력한 유행 아이템이 되었는데, 직선형의 파워 숄더로 옛지를 더하였



<그림 56> 09 F/W Givency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57> 09 F/W Givency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58> 09 F/W Givency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59> 09 F/W Givency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60> 10 S/S Givency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61> 10 S/S Givency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62> 10 S/S Givency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63> 10 S/S Givency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64> 10 F/W Lanv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65> 10 F/W Lanv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66> 10 F/W Lanv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67> 10 F/W Lanvi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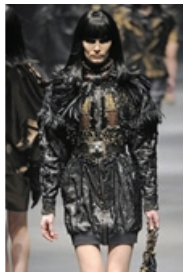
다. 아랍문화권에서 유래 된 카피에 프린트의 재킷(그림 61)으로 우아트적인 효과를 내며 모던한 느낌이 더해졌고 일자형의 확장형 솔더로 표현되었다. 블랙과 화이트의 강렬한 대비로 이루어진 드레스(그림 62)는 어깨의 블랙 요크와 풍성한 슬리브로 개성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레이 컬러의 드레이프드 드레스(그림 63)는 캡슬리브 위에 주얼을 가득 부착하여 파워솔더를 로맨틱하게 표현하였다.

(4) 량방(Lanvin)

Alber Elbaz의 Lanvin은 10 S/S 시즌에서 구조적이고 심플한 형태감과 드라마틱한 장식 사이의 밸런스를 적절하게 맞추려고 하였다. 수평으로 확장된 솔더의 레더 톱(그림 64)은 강한 도시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토마토 레드 코트(그림 65)의 슬리브는 마치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를 크게 확장해 놓은 듯, 두꺼운 종이를 접



<그림 68> 10 F/W Lanvin
(출처:www.firstviewkorea.com)



<그림 69> 10 F/W Lanvin
(출처:www.firstviewkorea.com)



<그림 70> 10 F/W Lanvin
(출처:www.firstviewkorea.com)



<그림 71> 10 F/W Lanvin
(출처:www.firstviewkorea.com)

은 듯한 형태감을 보여준다.

차콜 그레이 컬러 보디컨서스 드레스(그림 66)은 둥근 어깨선을 맞추듯이 마무리 봉제하여 곡선의 소매가 힘을 느끼게 표현되었다. 로 옛지 형태의 블랙 드레스(그림 67)는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를 변형하여 드레스의 드레이프와 매치되도록 소매의 접기 방식을 이용하여 보여주었다.

또한 클린하고 단정한 실루엣과는 다른 보다 장식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매우 구조적인 소매 상부의 시접을 노출시켜 옷의 형태감을 확실하게 하기도 하였고(그림 68), 청키한 깃털 네크리스를 하여 더욱 눈에 띄는 특징을 만들었다. 짧고 뺏뺏한 깃털이 솔더 라인을 강하게 부각시켰고(그림 69), 마치 머리를 곱게 빗어 풀어 놓은 듯한 퍼 소재로 어깨를 강조하기도 하고(그림 70), 과장된 역삼각형 실루엣의 펠트 소재로 소프트 아방가르드한 느낌을 주는 코트(그림 71)도 아래로 처지면서 매우 확장된 솔더를 표현 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어떠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하여 사회구성원이 자기표현을 파워 드레싱으로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선택하고 착용한 패션은 어떠한 형태였는지 살펴보았다. 즉 문헌 연구, 자료 검색을 통한 사진 및 컬렉션 자료에서 솔더를 강조한 1900년대 이후의 세 시대, 즉 1930년대, 1980년대 2000년대를 비교하고, 각 시대별로 어떠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영향이 작용되었고, 그 시대의 디자이너는 어떻게 옷으로

표현하였는지 이미지를 분석하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30년대 테일러드 수트는 형태적으로는 1980년대, 2000년대보다는 파워 수트적인 형태감에 미흡한 듯 보인다. 그러나 1930년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열망과 끊임없는 시도, 남녀평등에 대한 투쟁에 갈망 등이 여성복에서 20세기 들어 솔더패드를 사용하여 어깨넓이를 확장시키고, 남성의 전유물로 인정받던 테일러드 수트를 여성들도 같이 입게 된 것이다. 디자인의 특성은 어깨를 강조한 역삼각형 실루엣을 최대한 돋보이게 하기 위해 가슴과 허리, 허프의 볼륨을 줄이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입어, 솔더의 강함을 최대한 드러내고자 하였다. 종아리를 가리는 길이의 타이트 스커트와 매치하였다.

둘째, 1980년대는 1960년대 이후 여성해방운동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더욱 향상되고 사회적 역할이 증가된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직장여성들이 문화 창조의 주체로서 패션의 리더의 위치에서 새로운 소비자 집단으로 부상되었던 시기이다. 1980년대를 전후로 베이비 붐 세대에 의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경향이 나타났는데, 미국의 대도시 교외에 살면서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엘리트층인 여피는 산업계와 정계에서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패션 키워드는 ‘럭셔리(luxury)’와 ‘클래식(classic)’이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자 동료들처럼 성공의 지름길을 가고자 하는 희망을 내포하는 파워 수트를 착용함으로써 능동적이며 권위적인 이미지를 가시화하였다. 이들은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직업적 성공과 경제적인 부에 가치를 두며, 여가를 즐기는 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부류였다. 이와 같이 1980년대는 파워 수트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는 열망이 강하였다. 솔더를 수평적으로 확장하거나 아주 둥근 형태로 부피감을 키워서 단순한 형태 속에서 넓고 굳건한 솔더패드로 과장하였다. 역시 과장된 솔더를 더욱 강조시키기 위해 허리를 가늘게 표현하였다. 1980년대의 대표적 악세사리는 빅 벨트인데, 허리에 넓은 폭의 벨트를 같이 착용하여 가는 허리를 만들어 주었다. 모든 패션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최대한 과시하려던 세대이므로 청키한 느낌의 악세사리를 착용하고, 길은 화장과 디자이너 브랜드의 고가의 백 등으로 파워 솔더룩을 완성시켰다.

셋째, 2000년대는 사회적 트렌드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하이테크의 발전, 다문화주의의 팽배, 초자유주의의 추구하고 여성의 파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의 수용 여부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형성되고, 패션은 특정 자아나 집단을 반영하는 대리물이거나 그 자체로 격상되었다. 2000년대의 파워 솔더룩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징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덴티티의 표현이요 자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하면서 여성의 파워는 자기표현욕구를 더욱 표출하게 하여 자신의 외모와 스타일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솔더 부분을 강조하는 테크닉은 시대별로 차이를 보이며 변화되어진다. 1930년대는 솔더패드를 이용한 여성의 어깨를 처음으로 강조한 것에 의의가 있다. 1980년대는 직선, 곡선과 같은 선의 확장개념으로, 2000년대는 직선, 곡선과 같은 선의 확장개념만이 아니라 삼각뿔형, 구형, 자유 입체형 등 입체의 개념이다. 이러한 입체적인 형태감을 만들어내는 것은 완벽한 패터이어야 된다. 또한 캐스케이드 러플, 에폴렛, 프린지 등 디테일의 사용도 많았다. 블랙 화이트의 색상 대비, 비치는 소재와 비치는 소재 안에 사용된 솔더 패드와의 시스루 효과에 의한 재질 대비, 부피감을 더욱 확장시키는 모피나 헤어섬유의 사용 등 파워 솔더를 만드는 무한대의 변형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의 파워솔더와 비교

하면 상당히 여성적이고 화려함을 더한 특징이 보인다.

파워 드레싱에 대한 사회문화적 연구는 1930년대, 1980년대, 2000년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여성들이 파워 솔더룩의 선택과 착용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동일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유행했던 다른 패션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 파워 솔더룩과의 관련성만 연구한 것에 아쉬움이 있으며,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각 시대별 특징적 패션과 사회문화의 관련성을 계속 고찰하고자한다.

참 고 문 헌

- 금기숙 외(2002). *현대패션 1900-2000*. 서울, 교문사.
- 김민자. (2011. 9. 9). 1930년대 패션. 네이버캐스트 자료검색일 2011. 9. 9,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김민자. (2012. 3. 30). 980년대 패션. 네이버캐스트 자료검색일 2012. 4. 5,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김민자. (2012. 6. 8). 1990년대 이후의 패션. *네이버캐스트* 자료검색일 2012. 7. 1,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김영란.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의복구성의 부분 변형.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1), 103-122.
- 김영란. (2010). 파워 솔더 룩의 패턴구조 분석. *디자인연구*, 23(4), 266-274.
- 김정미, 이정순. (2009). 파워 솔더 재킷의 조형적 특성과 시각적 이미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3), 125-134.
- 김정미. (2011). 파워 수트 스타일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3(5), 677-685.
- 김현식. (2000). 의복과 문화적 접근: 질적 연구 방법의 중요성. *한국의류학회지*, 24(4), 510-520.
- 박성운. (2006). *21C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복고적 성향*.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 박혜원, 이미숙. (2002). 레트로(Retro) 패션의 특성과 문화산업적 의미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2(3),

- 171-187.
- 삼성디자인넷. (2009). 2009 F/W Collection에 나타난 Power Dressing. 자료검색일 2010. 2. 24, 자료출처 <http://samsungdesign.net>
- 삼성디자인넷. (2009). 드라마로 살펴 본 Women's Power Dressing. 자료검색일 2010. 2. 24, 자료출처 <http://samsungdesign.net>
- 삼성디자인넷. 20C FASHION. 자료검색일 2006. 4. 28, 자료출처 <http://samsungdesign.net>
- 안광숙. (1997). 복식에 표현된 복고경향, 19세기와 20세기 여성복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민. (2012. 3. 2). 조르지오 아르마니. 네이버 캐스트. 자료검색일 2012. 4. 5,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양희영. (2012). 21세기 소비자 문화 트렌드 특성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4(2), 199-214
- 최샛별, 진기남. (2006), 문화사회적 시각에서 본 한국 사회에서의 명품의 인상 관리적효과. *한국의류학회지*, 8(6), 672-678.
- 최샛별, 진기남. (2007), 문화사회학적 시각에서 본 패션의 전략적 사용. *한국의류학회지*, 9/10(31), 1342-1351.
- 최호정, 하지수. (2005). 우먼 파워로 나타나는 최근 패션 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5(2), 129-142.
-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1997. 8. 25), 네이버, 자료검색일2002.2.3,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퍼스트뷰코리아. 08, 09, 10 S/S, F/W Collection. 자료검색일 2011. 4. 28, 자료출처 <http://samsungdesign.net>
- 함연자. (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미적 특성. *한국복식학회지*, 53(6), 101-115.
- Roach, M. E., & Eicher, J. B.(1979). The Language of personal adornment In J. W. Cordwell & R. A. Schwarz(Eds), *The fabrics of culture, the anthropology of clothing and adornment.. New York: Mouton*, 7-12.